第265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3月5日(月)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審査된案件

1.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 ····· 1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정부로부터 이번 회담의 결과와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복원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3 합의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 6자 회담을 통한 남북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남북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일련의 회담에서는 민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 등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6자회담의 2·13 합의가 명시한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인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등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남북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사항들과 후속조치들이 북측의 2·13 합의 이행 여부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상황별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남북 관계의 발전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나은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고하신 회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10시10분)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퍽 의미 있고 뜻있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9·19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한 2·13 합의사항을 남북 간에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만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2·13 합의 이후 6자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감당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자는 목표입니다.

둘째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복원과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남북 간에 대화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우리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개월간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정상화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는 한반도 미래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 아래 이번 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설정하며 함께 공동의 과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회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5회, 실무대표 접촉 5회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 기간 중에 대표단은 현지에서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쌍방 중점 강조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쌍방의 기조발언을 통한 강조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측 기조발언에서 첫째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7개월간 남북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2·13 합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세 변화에 부응, 남북대화를 정례화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북측의 내정 간섭적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인사 등을 거명, 비난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남북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북측에서는 기조발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족 우선, 민족 중시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 대단합 실현과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올해 6·15 및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이 지원하고 참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밖에 제13차 경추위를 통해 쌍방의 협력문제에 대해 토의할 것과 중단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전면 재개하고 적십자 회담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분야별 협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공동보도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2·13 합의 이행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2·13 합의에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이행조치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북측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측도 2·13 합의의 이행 의지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수석대표 면담 시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던 당시에 우리 측의 2·13 합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뜻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핵 폐기만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자회담과 남북회담을 병행 추진하면서 특히 남북회담을 정례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영남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역시 민족공조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재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단된 인도적 사업의 재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구체적인 이행일정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를 위한 적십자 단체 간 실무접촉을 3월 9일에 가지기로 하였고, 제5차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며,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을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따라 북측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8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남북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경협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제시하면서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간 평양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철도연결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이미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반기 중 열차 시험운행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경추위 위원급 접촉을 실무적으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쌀·비료 지원 문제입니다.

북측이 예년 수준의 비료 30만t과 쌀 40만t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측은 관례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의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며, 쌀은 제13차 경추위에서 차관 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15, 8·15 공동행사에 당국의 참여 문제입니다.

쌍방은 6·15 및 8·15 계기 남북 공동행사에 당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 공동행사는 우리 측 지역에서 실시키로 하며 여기에 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 첫째로 2·13 합의의 이행과정과 병행해서 복원된 남북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산가족 문제는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재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8차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협의하며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갖게 되는바 경협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재경부 등 유관 부처들과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열차 시험운행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현재 민간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는 6·15 및 8·15 계기 민족통일대축전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향후 남북 관계 관련 각종 사업·행

사들의 추진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정당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 자료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공동보도문의 요지를 추가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3월 9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열차 시험운행을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열린우리당 정의용 위원입니다.

이번 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신 데 대해서 이재정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대표단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쪽에서 북측에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납북자·포로·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결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라든지 또 북측에 우리의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남북대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작성하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첫째는 이번 공동보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남북협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최근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연결 문제라든지 개성공단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합의에서 군사적 보장조치의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또 군사 당국자 회담 일정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다소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또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군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 군부가 남북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통일부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아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군사적 문제하고는 약간의 상충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고 이 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보다는 상호 상충의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이 점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어제 일부 국내 언론에서 그러한 제언이 있었습니다만, 남북 장관급 회담에 군부 대표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를 합의한 고위급회담에서 보면 남측에서는 합참 제1차장이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북측에서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참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양측 군부대표가 참가할 필요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재 군사회담이라는 별도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이미 군사회담이 벌써 두 차례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회담을 잘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 장관급 회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위원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뉴욕에서 미국하고 북한 간에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10월에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한 결과 합의된 북·미 공동 코뮤니케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테러지원국 해제 등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조치 직전까지 진행됐던 합의가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찬성을 했는데 일본이

납치문제를 들어서 강도 높게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테러지원국 해제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13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워킹그룹회의도 7일, 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런데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북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는지 또는 북측의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우리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더 북측이 유연하게 대하는 것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평화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핵 폐기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납치자 문제를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의용 위원 지난 주말 통일부에서 작성하신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 해설 자료에 보면 이번 회담결과 남과 북은 앞으로는 어떠한 정세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 당국 사이에 대화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북 간에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과 같이 미사일 시험발사라든지 핵실험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북한이 2·13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화 지속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북측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2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그러한 우리 쪽의 우려를 북측에 전달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물론 그런 우려를 전달했고요, 저는 남북대화, 특히 장관급 회담이 갖는 기능은 그런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만일 일어났을 때 남북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의 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급 회담이 갖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예방조치를 하고, 때로는 어떤 결과에 대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은 앞으로 잘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번 회담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그 이면합의한 것을 국민에게 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하고 그 10분인가, 5분인가 여러 가지 기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고 북측이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말을 바꾸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말을 바꾼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이 원래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원칙적으로 대략 우리가 양측에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 '30만t과 40만t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金容甲 委員 됐어요. 모든 기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장관이 다시 또 새로 말 바꿀 필요 없고 내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金容甲 委員 됐어요.

우선 다시 와서 하든, 말을 다시 설명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부연 설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金容甲 委員 부연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장관이 정말 참 안타깝다 이것이에요, 열심히 하고도.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이번에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이면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면합의를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국민이 인정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이면합의가 없습니다. 이면합의를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면합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그러면 장관, 여기 보고에 보니까 다섯 차례 수석대표회담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金容甲 委員 그때 쌀 지원 문제가 수석대표회의에서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무회의에서 나왔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수석대표회의에서 나왔습니다.

○金容甲 委員 수석대표회의에는 누가 누가 참석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수석대표회의는 대표와 실무대표 두 사람과 기록원 해서 다섯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金容甲 委員 이쪽저쪽 합해서 총 5명이 참석한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양쪽이 10명입니다.

○金容甲 委員 양쪽이 10명?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金容甲 委員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러면 그때 대변인이 참석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변인은 대표가 아닙니다.

○金容甲 委員 통일부 대변인은 참석 안 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대변인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金容甲 委員 하여튼 그때 이야기했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金容甲 委員 그때 이야기했으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이쪽에서 주겠다는 언질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나 정황을 봐 가지고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해 놓고 안 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장관급 회담은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金容甲 委員 그래서 장관급 회담은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잘못됐다, 이면합의다 하는 소리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金容甲 委員 가만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그다음에 6·15하고 8·15 행사에 당국자가 참여하기로 했지요? 6·15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자가 참여하기로 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 지나가야 국민들께 도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甲 委員 가만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이니까 시간……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석대표 간 회담에서 저희가 남쪽의 여러 가지 여론도 설명을 하고 이 핵실험 이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북측에서 30만t과 40만t 요청을 해서 이것은 관례대로 절차를 밟아서 심의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로 넘기기로 그렇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金容甲 委員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자꾸 그렇게, 이면합의를 했으면 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면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면합의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金容甲 委員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면합의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金容甲 委員 알았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金容甲 委員 북한에 가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여기 와서는 자꾸 그렇게 국민들 향해서 어거지로 이야기합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면 되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 의지대로 말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金容甲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의, 8·15하고 6·15 행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과거에도 이것에 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참여한다고 한 의미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이유는 그동안 남쪽에서 사실 6·15공동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죽 활동을 해 오고 정부는 다만 지원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 하면 8·15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당국자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우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현 정부가 금년이면 다 끝나는데 정권 말기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시 말해서 남한 선거에 영향을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8·15 행사에 남북 당국자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일이고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金容甲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장관이 이미 이면합의를 하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관이 마침 생일…… 지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에 가서 생일을 맞아 가지고 북한 사람이 축하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김정일화를 선물로 받고 "일생에 잊지 못할 기쁜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꽃다발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일 음식을 호텔 측에서 아주 잘 준비를 해 주고……

○金容甲 委員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호텔 측에서 받고 "아, 오늘 내가 참 기쁜 생일을 맞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金容甲 委員 했지요?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꽃다발을 받고 한 말이 아닙니다.

○金容甲 委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이 본인이 아무리 감격해 마지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는 좀 자제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저 감사의 뜻을 표했을 뿐입니다.

○金容甲 委員 김정일화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것을 주는 것을 반대해 왔거든요. 김정일을 우상화시키고 하나의 충성 맹세로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장관이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좀 언행을 자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상반기에 폐지하라는 말은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말은 없었습니다.

○金容甲 委員 여기에 보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이런 북한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기조연설에서만 했고 나머지 실무협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金容甲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꽃다발이라는 것이 꽃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지 무슨 김정일화 꽃다발이 따로 있고 일반 꽃다발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호텔 측에서 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호의로 준 것으로 알고 그냥 받았던 것뿐이지요. 거기에 제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金容甲 委員 호텔 측이 주지 다른 사람이 갖다 줍니까?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예, 최성입니다.

공식 남북 장관급 회담에 데뷔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는 국민에게 맡기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제기와 더불어서 이재정 장관의 데뷔 회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오락가락 이재정 장관이다' 하는 비판 일색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언론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락가락한 일도 없고 정확한 말의 전달을 했는데, 비록 매끄럽게 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의 본질이나 내용의 흐름에서 전혀 오락가락한 일도 없고 정확한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 쌀 지원과 관련된 이면합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해명을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이면합의도 없고 이면합의를 할 수 있는 회담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이 이면합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대변인실 논평을 보면 "이면합의를 즉각 공개하라." 이면합의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선국면에서 한나라당을 융단 폭격하고 있는 북한에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키로 한 것은 아닌지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생일 선물로 받은 김정일화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친북활동을 하고 온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이게 도대체 원내 제1당 대변인실의 논평인지, 전형적인 색깔론이고 수구 냉전 세력의 한반도 평화 트집 잡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한데 이러한 원내 제1당의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남북 관계는 비정치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은 7개월 동안 단절되었던 회담을 다시 정상화……

○최성 위원 장관님,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히……

이러한 논평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성 위원 이번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나 노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 정상회담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성 위원 일체 없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최성 위원 이번에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반기 장관급 회담 이후에 대북 특사 파견을 거쳐서 8월 남북 정상회담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는데요, 그것도 저는 오늘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것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성 위원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공개적인 형태 또는 비공개적인 사석에서라도 일체의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가능성과 관련된 대화나 협의는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논의할 자리가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담의 정상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최성 위원 일부 야당의 지속적인 이면합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노 대통령이 탈당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를 출범해서 북한 핵문제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대선 국면인데 불필요한 정치권의 대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관급 회담의 결과를 오늘 한나라당, 우리당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남북문제에 대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또 정책적인 자문을 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최성 위원 이번에 경의선 시험 운행을 상반기 중 협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요청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대한 요구나 사과나 또는 일체의 협의는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협의를 할 계제는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 했습니다.

○최성 위원 사석에서도 이런 데 대한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선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반기 중에 열차 시험운행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최성 위원 6자회담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세계적인 반인권 사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정면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국제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 당국이 향후에 국제적인 인권단체와 함께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를 다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저희 부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계속 한나라당에서는 왜 북한의 대선 개입 발언에 대해서 언급이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정 장관께서 과거에 곧바로 반박 논평을 냈고 이례적으로 이번에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북측 당국에 한국 대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재차 요구했는데 북측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북쪽에서의 얘기는 우리 남측에서도 북쪽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최성 위원 잠깐만, 남측이라는 게 남측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특정 정당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러한 여러 단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남북 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현재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제가 천명을 했습니다.

○최성 위원 거듭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계속 북측이 그런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북측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 위원 예,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외교·안보 현안의 경우는 최고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 토씨 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 준 이번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에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언론브리핑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대선에 조금이라도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당리당략적 비판과 또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번에 합의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통일부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이재정 장관, 이번 회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지난 2000년 7월부터 스무 번째 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남북 장관급 회담'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쌀·비료 주기 위한 창구,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경추위도 보면 좀 더 북한에 쉽게 주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 같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핵실험 이전의

장관급 회담의 경우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장치, 그래서 남북 당국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면 저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실험 이후에 있어서의 장관급 회담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회담이 핵실험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金德龍 委員 전과는 좀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바로 그 문제는 단순히 남북 관계 진전만을 위한 회담이 되기보다는 지금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또 핵문제가 아주 중대한 우리 민족 사활에 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라든가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 내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저는 분명히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비핵화합의를 깨고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 첫 번째 회담에서 사과를 분명히 받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들이 그 책임을 묻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분명히 얘기를 전했고……

○金德龍 委員 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유감의 발언이라든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든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발언이 전혀 없었지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회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7년 동안에 보낸 쌀이 200만t, 비료가 225만t, 그거 돈으로 쳐도 쌀이 9000억, 비료가 8000억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갖다 퍼 주기 위한 무슨 창구 역할, 이게 지금 국민이 가지는 인식입니다. 이번에 사실상 합의한 쌀 40만t도, 물론 주지 말자는 게 아닌데, 이 양 자체도 북한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비료 30만t은 북한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통상적인 인간관계를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기계적인 상호주의를 하자는 건 아닌데 대개의 경우 돈을 갖다 주면 받는 사람이 고맙다고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 지금 어떻게 되느냐? 돈 주고 절하고, 북한은 돈 받고 절 받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한 말씀……

○金德龍 委員 아니, 잠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우선 아까 합의 사항이 아니다, 이면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장관이 그런 합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합의를 못 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 북한이 지금 최고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쌀, 비료 받는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회담 앞서서 3월 안에 경추위 열자는 얘기했고, 그때 3월 안에 경추위 열자는 이야기는 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초하룻날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쌀, 비료 지원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내역까지 내놨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최고 관심사가 이건데 이거 합의 안 하고 왔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면합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글쎄, 아마 이게 월권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당연히 그런 합의를 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합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비밀 합의를 할 때 북한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속이는 합의를 하자고 북한에게 우리가 제안했겠지요. 북한 국민, 당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줄 것 주겠다고 하고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옳지, 국민 속이는 일이고…… 저는 국민 속이는 일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국민을 속이고 북한 당국과 이면합의를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점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께서는 종교인이고 또 사회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저는 이런 것만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먼저 스스로 합의했다 해서 기자들이 "이것이 북한의 요구냐 아니면 합의냐?" 하니까 "북한의 요

구가 아니라 합의다.” 이렇게까지 똑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은 “합의가 없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북한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쌀·비료 지원 문제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느 기구에서 다룰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20차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는 문안이 공동보도문에 들어간 것이 단 한 차례입니다. 그 한 차례도 거기다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보도문에 넣지 않는 이유는 비료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쌀은 경추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것도 이런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을 설명한 것이지, 내용을 합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결정 권한은 그 기구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돼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돼 오던 남북 장관급 회담의 관행을 제가 철저히 지킨 것뿐이지요. 그것을 넘어서지도 않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점은 정말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德龍 委員 지금 장관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쌀이나 비료는 적십자회담이나 그리고 경추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金德龍 委員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보도문에 없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金德龍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그것은 보고를 드렸고요.

○金德龍 委員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합의했다고 해 놓고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金德龍 委員 양심에 관한 문제이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양심에 관한 문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金容甲 委員 이 장관,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 그거 다 했다 하지 그게 뭐야?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金容甲 委員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통일부장관 이재정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한 것은 한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박희태 위원 합의했다고 이야기해도 돼. 뒤에 보니까 권한 밖의 일이니까 굳이 안 한 것처럼 그러는데……

○金容甲 委員 그래야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를 않고요, 이 회담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가는 것이 역시 남북회담에 대한 정상화를 하는 절차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박희태 위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위원장 김원웅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지나치게 2·13 북핵 합의에 연동시킨 데 대한 비판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면합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정부는 4월 14일 이후에 사실상 결론 날 2·13 북핵 합의의 이행 실적에 경협추위(經協推委)를 맞추었고, 거기에 따라서 쌀 차관이 제공될 것이고, 북한은 또 거기에 연계시켜서

5월 초순에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허여키로 돼 있는데 제가 늘 비판하는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 문제는 북·미 관계나 6자회담의 틀거리에서 해결하고 경협이나 인도적 문제는 남북 관계에서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그래서 양 틀을 분리시키고 우리의 공간은 확보되지 않고, 그러면서 북한은 늘 민족 중심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엄청난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간 늘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던 것 중 대표적인 게 우리만의 공간을 창출하지 못한다, 우리만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가 북핵문제나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6자회담이나 북·미 관계에 이끌려 갔다 이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회담 개최 자체도 2·13 합의와 연계되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2월 12일 날 북핵 6자회담 성공과 연계시켜서 통보를 했고, 13일 날 하자는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장관은 1월 8일 날 "기본적으로 남북회담이라는 틀 자체가 6자회담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해 놓고도 이번에는 도리어 회담 성과 해설 자리에서 "이것은 선순환적 진전이다." 이런 식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면합의설 논쟁보다는 이러한 병행 추진의 문제점이 도리어 심각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면합의설 논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히 말씀해 봅시다.

대선 국면에서 한나라당을 융단 폭격하고 있는 북한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쌀 비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아닙니다.

○최재천 위원 그렇지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로 쌀·비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없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생일선물로 받은 김정일화에 눈이 멀어서 친북 활동 차원에서 쌀 비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최재천 위원 억울하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 쌀 40만t 비료 30만t 그 이상의 양을 약속하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없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쌀·비료 문제와는 별개의 또 다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공동보도문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게 전부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최재천 위원 일부 신문조차도 김정일화에 대한 과잉 해석을 한 데 대해서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장관은 꽃을 받았는데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김정일화를 받은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두 개 끼어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김정일화 알았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김정일화만 뽑아내 가지고 던져야 되는 겁니까?

옛날 우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스님이 동자승하고 길을 가는데 길을 못 건너고 있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노승이 그 사람을 건너게 해 줬어요. 동자가 쫄쫄 따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스님, 왜 색을 가까이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오고 있구나." 이랬어요.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키워 가지고 도리어 북한 입장을 강변해 주는 겁니다. 도리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꽃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면서요? 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김정일화 그거 왜 버리고 왔습니까?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가져오셔야지 그것을 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음부터는 김정일화 사진을 분명히 가지고 가셔서 누가 선물 받으면 추려 내세요. 화훼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남북회담에 참석을 시켜서.

그리고 "성직자답게 고해성사하라." 나는 이런 논평 보고도 놀랐어요. 왜냐? 아니, 지금이 정교일치 시대입니까? 정치와 도덕이 분리도 안 되는 시대입니까? 정치와 도덕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근대국가의 출범이고 근대 헌법의 기초원리입니다. 비록 성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고해성사해라." 이런 전근대적인 논평 자체가 저는 우리 정치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통일부의 소극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합니다.

논의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제안이 있었으니까, 북한이 쌀 비료를 좀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으면 장관급 회담이라는 최고위급 회담에서 이 정도 논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합의라는 표현 자체는 쓰지 못하더라도 '그래, 논의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왜? 헌법 제4조에 평화통일의 의무가 있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선서를 했다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평화통일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면합의설도 늘 제기하는 문제 아닙니까? 2005년 6월에 정동영 장관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날 때도 "이면합의 있다." 한나라당은 주장했어요. 2006년 12월 6자회담 재개 시에도 이면합의 있다…… 아닌 것 다 밝혀지잖아요. 그게 뭐 겁납니까?

그다음에 2006년 4월 18차 때 이종석 장관이 장관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비료 20만t 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때도 공동보도문에 포함이 안 됐고 그랬음에도 그때는 이면합의 논란으로 걸고넘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작위적입니까?

그다음에 작년 겨울 남북경협기금에서 올해 예산으로 쌀 40만t(1565억 원), 비료 30만t(1080억 원) 합의해 줬단 말이에요. 왜 국회 스스로 모순된 언동을 합니까?

그다음에요 쌀과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사실상 연계해 온 것, 그런 식으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연계해 온 것은 지난 6~7년간의 남북 정책입니다. 그리고 비료를 남북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사용해 온 것 또한 남북문제를 관찰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01년 국민의 정부 임동원 장관 시절에 비료를 사용한 선례도 있고 2005년 6월에도 비료를 별개의 문제로 활용한 선례도 있고…… 그런 선례들을 왜 무시하는 겁니까?

그다음에요 2005년에는 쌀 50만t, 2006년에 50만t 했다가 수해 때 9만t 지원했더구먼요. 2005년하고 2006년도 비료 35만t, 늘 지원해 왔어요. 예측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전혀 안 주다가 갑자기 주거나 전혀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되다가 갑자기 거론되면 대가성이나 이면합의설이 나오겠지만 남북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6~7년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국회가 돈까지 동의해 주고도 이제 와서 이면합의다…… 이건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에 논의한 것도 역시 예년 수준과 관례대로 처리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면합의나 또는 그런 것으로 폄하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장관님, 7개월 만에 회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화가 나서 저는 개인적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어렵게 7개월 만에 재개돼서 그동안 멈춰 서 있던 문제를 원점으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2·13 합의에 따라서 충실하게 우리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고 또 경추위 날짜를 잡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 측의 의지와 입장이 거의 반영된 회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는 논평과 입장은 정말 실망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어디 한구석에도 이 장관급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거나 남북문제가 원만하게 풀려 가기를 바라는 대목이 한 대목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통일부가 통일부 전 부처 차원에서 화를 내고 항의를 해야 맞는 겁니다. "이재정 장관은 북한에 충성맹세 했나" 이게 대변인 논평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제목입니다. '한나라당은 결국 반통일 냉전 수구 세력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정 장관이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수권정당이 될 수 없는 부적격 정당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金武星 委員 장관한테 질의하지 왜 한나라당 이야기를 해!

○임종석 위원 제 질의 시간입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나 하세요.

○임종석 위원 그냥 들으십시오.

또 장관에 대고 말입니다, "생일선물을 받은

김정일화에 취해서인지 꿀 먹은 벙어리마냥”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뒤로 몰래” “북한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키로 한 것은 아닌가.” “눈이 멀어 본분을 망각하고 친북 활동을 하고 온 것은 아닌가.”…… 이것은 화를 내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나라당 식으로 한나라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부 ‘이러이러했다면’이에요.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뒤로 몰래 쌀과 비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의 실패를 바라고 남북 관계의 악화를 조성해서 남북 대결의 신냉전체제로 다가오는 대선에 악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오히려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전 당 차원에서 대선 승리에 눈이 멀어서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반통일·반평화 냉전 수구 세력의 대표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인 겁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입장 전달이 되지 않아요. 변명하고 있지 말고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사과를, 제1당의 사과를 받으세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金容甲 委員 그것은 어째 장관한테 질의를 하지 왜 한나라당한테 그래!

○임종석 위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쌀 40만t, 비료 30만t,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해마다 쌀 40만t에서 50만t 그리고 비료 30만t에서 35만t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쌀 40만t, 비료 30만t은 그간 우리가 지원해 오던 것에 비하면 최저 수준이에요.

자,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비료 30만t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합의를 했습니까?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이 요청하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그렇게 합의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임종석 위원 쌀 40만t, 4월 18일에 경추위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임종석 위원 여기에 무슨 이면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절차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비료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4월 18일에 경추위를 통해서 쌀 문제를 논의할 텐데 무슨 이면합의가 있다고 이렇게 흠집 내기에 나서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남북 화해·협력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장관님,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부터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엉터리, 반대를 위한 반대 여론에 변명하다 보면 시간만 갑니다. 국민을 보고 당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80% 이상이 남북 화해·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장관의 의지가, 통일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세요.

○위원장 김원웅 예.

○박진 위원 오늘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남북 문제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또 이것은 장관급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석 위원이 한나라당의 논평 하나를 문제 삼아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수차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 발전, 평화 정착에 관한 입장을 밝혀 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 위원 제가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최성 위원 예.

○위원장 김원웅 예, 하십시오.

○최성 위원 저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석 위원님의 상임위 질의는 대단히 적절한 질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으로 어떤 정

당이, 어떤 국회의원이 혀 세 치로만이 아니라 진정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느냐는 그 염원을 담은 정책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공세성 질의가 나오는 경우 당연히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장관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고 보고 오히려 동료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반론을 제기해서 질의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시도가 중단되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우리 박진 위원이 소속하신 한나라당에서도 과거에 정부뿐만이 아니라 집권 세력, 여당 전반에 대해서 '친북' '반미' 이런 색깔론적 공세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는 그 부분을 경청했고 이례적인 경우 정책질의를 통해서 장관에게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관급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강도 높게 주문을 하고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간사의 질의는 정당하고 우리가 진정 탈냉전 시대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라면 고민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한 5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외통위를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뭡니까? 아까 제가 최성 위원 또 최재천 위원, 임종석 위원, 세 사람 이야기를 죽 들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성 위원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고흥길 위원 조심해!

○최성 위원 무슨 반말을 하십니까?

○임종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최성 위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임종석 위원 제가 고흥길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최성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고흥길 위원 말 다 듣고 이야기해!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권영세 위원 남의 발언 시간에 하지 말고 말 다 듣고 하시라고.

○고흥길 위원 말 다 듣고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려면 의사 진행 ……

○임종석 위원 제가 그렇게 고흥길 위원님에 대해서 막말한 적이 있습니까?

○최성 위원 '이 사람'이 뭐예요!

○임종석 위원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한테!

○고흥길 위원 왜 말이 안 돼! 아니, 내가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국회의원도 '이 사람'이고 장관도 '이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임종석 위원 서로 간에 기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흥길 위원 기본 표현이 뭐……

○임종석 위원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흥길 위원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나 끝난 다음에 이야기 해. 발언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라고요.

○임종석 위원 반드시 사과하십시오.

○고흥길 위원 무슨 사과야, 사과는?

○임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고흥길 위원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는 막가는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고흥길 위원 그것이 무슨 막가는 표현이야? 여기서 지금 막가는 표현들 안 썼어요?

○임종석 위원 언제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독적인 표현을 썼습니까?

○金容甲 委員 됐어! 그만 해요.

○임종석 위원 지금 위원님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고흥길 위원 아니, 지금 선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마당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임종석 위원 제가 한나라당이 한 것을 정책질의한 것입니다.

○고흥길 위원 그것이 무슨 정책질의입니까?

○임종석 위원 왜 인격 모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고흥길 위원 왜 인격 모독이야. 그것이 무슨 인격모독이 돼!

○임종석 위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도 정책적으로 하십시오.

○고흥길 위원 발언 좀 중지시켜 주세요. 발언 좀 중지시켜 주시고……

○위원장 김원웅 예, 고흥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흥길 위원 일일이 대꾸하지 말도록 하세요.

○임종석 위원 어떻게 위원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고흥길 위원 위원장, 조심 좀 시키세요.

○임종석 위원 한 번도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알겠습니다.

고흥길 위원님 계속 의사 진행 해 주십시오.

○최성 위원 경고와 주의를 받으셔야 될 분은 고흥길 위원입니다.

○金容甲 委員 됐어. 됐어.

○고흥길 위원 됐어, 이제 그만 합시다. 아이 참!

○최성 위원 ‘됐어’가 뭡니까? 경어로 해 주십시오. 상임위장에서 국민이 보고 있는데. 여기가 반말하는 장소입니까?

○고흥길 위원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

○임종석 위원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정말 부적절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질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고흥길 위원 하여간 심히 불쾌한 일이고 이러한 일이 상임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질의를 할 때 보면 남의 당을 걸고 들어가거나 동료 위원의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반격하는 이러한 작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급히 시정해야 되고 우리 국회에서 추방해야 될 그야말로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박진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적절히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의 대변인 논평이 이 자리에서 거론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재정 장관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 대한 경위를 묻고 사실상 이면합의에 대한 여부에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서 왜 엉뚱하게 한나라당의 대변인 논평이 나오고 대변인 논평에 시비가 붙어 가지고 이러한 소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을 여기에서 거론한 세 위원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임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질의하겠어요.

○권영세 위원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임종석 위원님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지요.

○金武星 委員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임종석 위원 저는 분명히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강도 높은 표현들을 쓰기는 했지만 분명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성과에 대해서, 제1당이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의 평가를 질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위원님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모독적인 발언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최성 위원, 최재천 위원, 임종석 위원, 실명을 거론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인격적 모독이 되는 발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정책질의도 아니고 제 의사에 대한 반론도 아니고 고흥길 위원님의 표현은 분명히 과도하게 동료 위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요청합니다.

○고흥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질의하십시오.

○임종석 위원 사과를 요청합니다.

○고흥길 위원 사과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과할 상황이. 그게 무슨 사과할 상황이에요? 아니,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게……

○임종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모독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고흥길 위원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어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이런 모독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누가 위원님한테……

○고흥길 위원 뭐가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모독

적인 발언은.

○임종석 위원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하는 발언이 모독적이지 그럼 어떤 발언이 모독적입니까?

○고흥길 위원 자,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어요.

○위원장 김원웅 질의하십시오.

○임종석 위원 잘못된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고흥길 위원 제가 질의하겠어요. 무슨 사과를 해요!

○임종석 위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고흥길 위원 실명으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애기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애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임종석 위원 어떻게 상임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임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에 대한 질의 시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 외의 위원들께서는 질의 위원의 발언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나 의사진행 발언 시에 위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흥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이 장관의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하고 일부 의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이나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 보는 평가는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이번에 장관께서 기조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특정 정당이나 인사 등을 거명·비난하는 등 대선 개입 중단을 요구한 것은 매우 잘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관께서 그러한 대선 개입 중단발언을 하신 다음날인 1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화해-대결시대 운명의 길 놓여’라는 제목으로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친미·보수 세력을 매장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집권에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보지 못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이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은 바로 장관께서 하신 발언에 대한 북한 측의 즉각적인 첫 반응이고 답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공식 기조발언 이외에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강력하게 몇 차례 항의를 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한 측의 반응은?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반응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저희는 알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일부라도 소개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역시 북쪽에 대한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지 않았냐 이런 항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것은 결국 남북 관계 개선이나 혹은 남북대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또 한 가지 공동보도문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맞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런데 지난해 열린 6·15 축전을 장관께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북한 측 단장이었던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의 발언파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애기를 듣기만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절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당시에 ‘한나라당이 집권 시 남

북교류는 파탄' 등의 오만방자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쐐기를 박는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은 못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이런 남북 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고흥길 위원 하여간 북한 측은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으로 이 축전을 기획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정부 측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에서 이것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용갑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북측은 "민족 우선, 민족 중시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요. 북한 측이 말하는 실천적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아무튼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쪽 기조발언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북쪽이 보는 기본 입장으로 설명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등 바로 이것을 지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이야기는 두 번째 항에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희들은 해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조발언에서는 그런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흥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위원들의 발언 중간에 이렇게 여당 위원들이 마치 무슨 말싸움이나 하는 듯이 달려들어 가지고 마이크를 계속 대 가지고 일대일의 대응을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사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고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위원 이번에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며칠간 계셨나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3박 4일간 회담을 했습니다.

○정몽준 위원 이 장관께서 가서 회의를 하고 오셔서 저희들이 다 같이 여기서 오늘 환영을 하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마음속으로 환영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보니까 제목에 '남북이 짜고 대한민국 국민 속인다면' 이것이 제목인데 혹시 이런 신문의 사설은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침에 제목만 잠깐 보고 왔습니다.

○정몽준 위원 읽어 보진 않으시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몽준 위원 제가 읽어 봤더니 내용은 이번에 소위 말하는 이면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었다면 속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이 짜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국민을 속인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남과 북이 짜고 국민을 속인다' '남과 북이 정말 짜고 하는 짓이냐' 하나가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국민한테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고 속이는 짓을 하느냐' 두 가지 짓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남 전략, 공산화 전략이라고 표현하겠지요. 적화전략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정몽준 위원 아니,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간략히 다시요.

제 생각은 그렇고, 제 생각의 이유는 노동당 강령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전략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위원 그런데 우리에 대한 북한의 적화

전략은 일관성 있게 지난 60년간 유지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최고 책임자들 또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 제가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 장관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걱정하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북경에서 6자회담이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바로 워싱턴으로 가서 평화회담을 논의한다고 그러고, 그날 또 신문을 보면 우리 외교안보원의 교수는 평화회담의 첫 번째 단계인 평화선언인가 이것을 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외교안보원의 교수가 썼고 또 워싱턴에서는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이런 보도가 죽 났습니다.

평화체제 문제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송 장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정 장관의 전임자인 이종석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기의 폐기가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민순 장관은 또 이 자리에 와서 "핵무기 폐기하고 평화체제 논의는 병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전제조건하고 병행한다는 것은 전혀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정부의 장관들이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해도 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글쎄, 그 표현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에 있어서는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몽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 장관도 그렇고 이재정 장관도 그렇고 상당한 억지 내지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저는 넣지 마시고 이종석 장관……

○정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단순하게 무슨 핵무기 폐기가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것을 다 빼더라도 그냥 순수한 우리나라 국어로만 생각해도 전제조건이라는 것하고 병행한다는 게 어떻게 같은 뜻이 돼요? 이재정 장관의……

○통일부장관 이재정 두 분의 표현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억지 궤변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될까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제협정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고 이 정전협정에 관한 논의는, 예를 들면 헌법을 바꾸자 하는 논의보다 백 배, 천 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를 하겠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고 최근에는 또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해서 선거 횟수를 줄이자 하는 개헌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보다 천 배 이상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표현하자면 개헌 논의보다 백 배, 천 배 중요한 이러한 논의를 갖다가 지지도가 한 10%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현 정부가,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이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라고 이 장관께서는 보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다음 올 정부까지도 가야 할 기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위원 이 장관께서는 자꾸 억지하고 궤변을 하는데 미래 정부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현 정부가 미래 정부의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해야지 국민의 지지가 10% 수준인 현 정부가 미래의 국민들이 결정할 것을 정한다, 이것이 월권이고 무책임한 일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몽준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장기적인……

○정몽준 위원 알겠어요. 그만 하세요.

자꾸 장관께서 억지를 하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나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최근에 평양에 가서 자기 집안의 가족이 아직도 6·25 전쟁포로로 있는데 평양에 가서 오는 길에 노동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읽어 보면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영삼 역도는 전차 위에 올라선 문민 파쇼, 한나라당은 천하의 역적당, 민주공화당 정권은 경제 분야에서 기적 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지금 단순하게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격하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원장 김원웅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정몽준 위원 만약에 마이크를 끄시면 마이크를 끈 상태로 계속하겠어요.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원웅 예.

○정몽준 위원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현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만 빼고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을 신문에 이렇게 내는데 북한이 최근에 핵무기도 또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회담을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질의인데, 또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언제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을 회담을 해서 이면합의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랑 같은 동포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도적 지원을 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북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이면합의가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문자 그대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해서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 이번에 북한 가서 한나라당 비난하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장관의 발언 자체가 표현하자면 면피를 하기 위한 발언이고 북한이 또 다음날 그런 것을 공식으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무시한 것이지만 이 장관은 물론 무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인도적 지원에 관한 회담을 며칠 하고 왔다, 이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내정간섭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지요. 이것은 전부 금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선거를 한다니까 그것을 겨냥한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있었던 북경의 6자회담 합의도 북한의 평화공세의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또 북한도 저희들이 볼 때 아주 경우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어떤 우려,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하면 지금 행정부의 일부 책임자들하고 북한하고 서로 이심전심 통해서, 내통을 해서 선거공조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우려,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재정 장관께서 하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미흡하고 면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정당의 당원이시지요? 당원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오늘 제가 당적 정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몽준 위원 여태까지도 정당의 당원이면서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중립한다 이것은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요구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신부이시고 또 학자로서 오래 계셨는데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소위 말하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것, 그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당에 대한 자기 소속감 내지 충성,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의욕이 단순하게 당적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관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셔서 사무실에 계시다가 저녁에는 그래도 가깝고 편하신 분들하고 만나실 텐데 그 만나는 자리가 사석이라고 하지만 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은 사석이 아니지요. 그런 사석에서 장관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것을 짐작을 해 보면 장관께서 단순하게 당적을 정리했다고 그래서 내가 국무위원으로서 중립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단순하

게 당적을 정리했다고 그래서 할 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한번도 국민을 속이려고 하거나 어느 당의 입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준 위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어요.

나는 장관께서 그러면 당적을 정리했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장관께서 속해 있던 당에 대한 인식이나 거기에 대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양심껏 장관으로서 맡겨진 책무를 비정치적·초당적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정몽준 위원 장관께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바라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당적을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는 탈당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진작 하셨어야지요. 당적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면 항상 정략적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적을 정리하시든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탈당하실 때는 바로 하셨어야지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이라도 하셨다니까 저는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면합의 문제가 한나라당만이 지적한 사항은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이지요. 이면합의가 있느냐의 문제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이면합의가 없습니다.

○진영 위원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이면합의가 있었느냐의 문제는? 그 지적한 사항을 국회에서 당연히 따져야지요. 과연 있는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말이지요. 그것은 극도로 불안감이 있다, 불신이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께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이것도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장관께서?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다 설명하실 시간은 없겠지만 그런 의혹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래서 사실 오늘 각 당과의 정책협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과정을 설명드렸고 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진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대북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찬성하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사일 발사 후에 비료, 쌀 지원을 중단했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나서 바로 핵실험이라는 더 큰, 남북공동선언에 위배했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약속을 다 위반한 핵실험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2·13 합의조치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행동은 전혀 없고 합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께서 바로 지원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진짜 했는지, 북핵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했을 때, 2·13 합의할 때 혹시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전에 이미 다 지원 중단이 된 사항인데 다시 재개하려면 적어도 행동적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확실히 정부가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하여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부장관 이재정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진영 위원 예, 답변하셔도 돼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래서 사실상 이번 장관급 회담은 미사일, 핵실험 이후에 최초로 열린 장관급 회담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핵 폐기라고 하는 과제를 합의하고 이것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일차적으로 기울였고요.

그리고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와, 그리고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경추위에서 4월 18일부터 회담을 가져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관례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전혀 이면합의나 이면합의라 할 의도도, 필요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 중유 100만t 중에서 25만t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4분의 1을 한다면? 일본이 참가한다면 20만t가량이 될 것이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일본까지 5자가 각각……

○진영 위원 5자가 한다면 20만t이 되고 4자가 한다면 25만t인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이 균등과 형평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꼭 균등분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 정도의 상당액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그 부분을 대체할 이런 생각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합의 자체에는 경제 지원, 중유만이 아니더라도 인도적 지원으로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쌀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내용은 중유 말고 전기라든가 양곡이라든가 그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장관께서는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희는 6자회담에서 논한 100만t이라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경추위에서 논의할 내용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얼마든지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성격상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실 구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장관께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중의 하나가 평화체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핵무기나 이런 비핵화 부분이 해결된 다음의 상황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평화체제를 자꾸 너무 성급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또 있는데 지금 평화체제에 관해서 북·미 간에, 한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야기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장관께서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우선 그것은 9·19 합의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과제이지 현재 논의 단계에서 발전된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남북 관계의 대화의 정상화, 가령 북·미 관계의 대화와 관계 정상화 또는 북·일 관계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이 평화체제로 가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한미 간에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관계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비슷한 질의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6자회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 6자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 간의 접촉이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서로 선순환적 병행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별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별개라고 얘기하셨다는 것

이 아니라 전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럼요.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 경추위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월 13일 6자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60일 지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하신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월 18일을 제의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60일 이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사항 없이 된 건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도 고려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세 위원 오늘은 아무래도 이면합의서가 주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억울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전체적으로 화를 내셔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기본적으로 평양에서 떠나기 전에 간단한 기자 브리핑을 했고요, 돌아와서도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설명을 못 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신 정도가 아니라……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권영세 위원 본인이 발언하신 것이 오해를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요, 그러나 여기에 전혀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세 위원 쌀은 경추위에서 하고 비료는 적십자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 기관들이 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럼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특히 경추위에서 후에 만일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쌀이나 비료나 결국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통일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적십자사나 경추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 어떻든 회담에서 직접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이런 기관을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회의 결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북측에도 분명히 설명을 했고 저도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북한도 경추위에서 하고 적십자회담에서 하는 것을 잘 알 텐데 왜 장관급 회담에서 30만t, 40만t,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했을까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요구받아서 관례대로 이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권영세 위원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과 비료 지원이 순수하게 경추위하고 적십자회담 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왜 장관급 회담에서 장관님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까? 액수까지, 수량까지 정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관급 회담이 있고 그 아래 단계에 적십자 회담이나 경추위 회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급 회담에 넘기는 것은 남북 장관급 회담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권영세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장관님께서 실언을 하셨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합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때 애초에 여태까지 운영이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다 외부의 회담이 없을 때는 다른 채널로 해 가지고 이미 다 결정이 되고 경추위하고 적십자사는 그냥 통과의례 정도가 되는 식으로 운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도 실언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한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 얘기의 본질은 여러 가지 논의한 내용들이 그 양과 절차와 과정을 논의했고요, 결정짓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관행대로 각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지 통일부나 장관이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부하고 지난 정부가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요. 특히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뒷거래가 있었던 것도 밝혀졌고,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추위나 적십자사 회담에서 구체적인 지원이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굳이 장관급 회담에서 액수까지 수량까지 정해 주면 가 가지고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합의나 혹은 비슷한 정도의 양해가 서로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번 회담은 7개월 동안 단절됐던……

○권영세 위원 회담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괜찮게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회담 자체가 7개월 동안 단절됐었고요, 단절된 원인이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의 중단으로 인해서 단절됐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의견을 받아서 각급 회담에 넘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경추위를 열고 적십자회담도 하자, 우리는 그럴 의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서로 양해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30만t, 40만t,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에도 이면합의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면합의로 표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실상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 온대로 미리 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해 왔듯이 이미 장관급 회담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회담을 하면서 사실은 남쪽의 여론, 국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북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절차와 관행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논의한 것이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제대로 설명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내용 자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면합의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권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쪽뿐만이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금은 여당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든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암만 설명을 들어도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경추위하고 적십자사가 정말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이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장관급 회담이나 혹은 장관급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결정을 해 왔다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합의를 했다, 이것 분명하게 얘

기를 하세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두드려 맞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이번 회담을 정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절차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어떻든 주어져 있는 기관들, 적십자사와 경추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말실수를 해서 지금 잘해 온 게 모두 엉클어진 결과가 된 거네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엉클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얘기를 전한 겁니다.

○권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이번에 이면합의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논의가 촉발된 원인이 장관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관이 회담 끝나자마자 기자들 앞에 “비료 30만t, 쌀 40만t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했다가 황급하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의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아,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구나. 쌀뿐만 아니라 비료뿐만 아니라 더 큰 이면합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언론이 본 것이고 국민들이 믿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장관 자신의 말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을 장관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자꾸 이의 제기……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얘기한 진의는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때 기자가 한두 사람 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만천하의 언론기관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추측입니다마는 합의된 것을 기분이 좋았든 어쨌든 발표를 얼른 부지불식간에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장관 단독 결정사항이 아니고 경추위라든지 적십자사를 통해야 된다, 이것을 옆에서 참모가 얘기를 해 줬겠지요.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서 합의가 최종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말을 뒤집은 것이 아니고 앞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워낙 우기니까 저도 더 이상 이 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사가 1개의 거짓말이 10개, 20개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지금 장관이 합의해 놓고 안 했다고 한 이것이 앞으로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서 또 남북회담에 있어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식량이나 비료의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마치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추측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박희태 위원 무슨 말이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거짓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내가 세상사가 그렇다는 것을 주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세상사하고 이 장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박희태 위원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

○통일부장관 이재정 세상사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박희태 위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남북 간에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통일부장관 이재정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래요?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원조할 식량 규모나 비료의 규모를 경협 이런 데서 원점부터 논의합니까? 1t부터 시작해서 1만t, 10만t 이런 식으로 논의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태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30이니 40이니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전혀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장관 말이 또 거짓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0, 40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면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때 보겠습니다. 지금 "나, 안 했습니다." 이래 우긴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위원님, 제발 그 거짓말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희태 위원 인격 모독을 안 받기 위해서……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어떻게 인격 모독을 하십니까?

○박희태 위원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거짓말쟁이라고 했나?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그 뜻이지 다릅니까?

○박희태 위원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낳는 게 된다 하는……

○통일부장관 이재정 남북대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앞으로 남북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장관 자신의 말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 뭐라 하니까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비쳐졌다고……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박희태 위원 내가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랬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교훈적인 속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화를 팍팍 내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물어봅시다.

이면합의라는 것이 왜 장관의 말 태도 때문에 빚어졌느냐? 지금 전 국민들이 이번에 남북회담에서는 틀림없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방북 내지 양국 정상 간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할까, 그 예비 회담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다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한마디 없었다고 하니까 '이면으로 해 놓고 저런 것 아닌가.' 이렇게 강한 추측을 한다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정말 없었어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지금 7개월 만에 열리는……

○박희태 위원 없었으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자꾸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12월 대선에 관해서도 북한 당국하고 무슨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무엇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추측이 있다 이 말이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오히려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정간섭이고 이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항의를 했지 다른 얘기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것도 앞으로 밝혀질 사실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진리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희태 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우리가 30년 동안 내 들어온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 아니면 살 수 없다, 식량 문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인도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남북의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개혁·개방만 되어 가지고 자유왕래가 되고 자유로운 경제투자가 되고 경제협력이 되고 이러면 통일된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좀 했어야지요.

만날 쌀만 갖다 주고 비료만 갖다 주면 뭐 합니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북한이 어떻게 하면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가, 지금의 집단 생산 방식으로는 만날 해 봐야 이윤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맞는, 누구나 똑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제도로, 중국식으로 변하라고 이번에 이면에서라도 그런 권유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렇지 않고 쌀 한번 갖다 주고 적십자 회담 한번 해 가지고 이산가족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람 만나게 하고, 1년 지나서 적십자 회담 한다고 해서 또 비료 주고 쌀 주고 이산가족 한번 만나고, 만날 일회용으로 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산가족을 애태우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제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상으로 만나느니 후퇴를 해요. 이산가족문제도 제일 처음 나왔을 때에는 평양에서도 한번 만나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이러다가 이제는 금강산이라는 특정구역에다가 불과 1년에 100명인지 200명인지 만나게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화상으로 만나게 한다는데 그래 가지고 뭐가 됩니까?

후퇴 아닙니까? 화상으로 만난다는 것이 만나는 겁니까? 사진 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문제를 일회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박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2·13 합의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위한 협의를 경추위를 북한의 공동성명 초기 조치가 끝난 다음인 4월 18일로 잡은 것도 역시 북핵문제와 대북 지원이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북한이 해야 할 초기단계 이행조치, 이것을 북한이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2·13 합의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조 발언에서 그것을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북이 원칙적으로 동의해 왔기 때문에 저는 북이 분명하게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남북 간의 대화만이 아니고 실제로 6자회담에서의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북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이 좋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만약에 북한이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비료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아마 경추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만일 초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아마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러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 장관께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쌀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의 협상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뭔가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이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문제는 저로서는 확고한 입장이 있고 그 합의문에도 서두 제2항에 2·13합의 조치 이행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회담을 하고 나서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가정해서 공중파에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 지원이라는 것이 핵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의 여론 또는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 남북 관계의 발전 이것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 경추위가 논의를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2·13합의가 우선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서 논의한 내용들이 실천되기 어렵다, 이렇게 장관으로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국민들도 알아듣기 쉽고 남북 관계에도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분명한 원칙이고 아주 대전제입니다.

○박진 위원 지금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진 위원 그다음에 이면합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관께서 상당히 난처하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료는 대한적십자사에 넘기고 쌀은 경협위에 넘겨서 그쪽에서 논의해 결정짓는 절차에 대한 것을 북측과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우리 장관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으로 아는데 어떻게 '합의됐다' 이런 말씀을 불쑥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게 단순한 말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 전체 내용을 위원님께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뜻으로 제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고요.

○박진 위원 그러면 단순한 말실수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말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여러 번의 회담과 협상이 있을 텐데, 장관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불쑥 이야기를 했다가 5분 만에 번복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주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남북 관계 회담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불쑥 이야기를 하시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되니까 우리 정부의 신뢰성도 추락되고 뭔가 이면에 합의된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혀 이면합의도 없을뿐더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정 간섭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의 내정 간섭적인 발언에 대해서 장관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또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그런 북한의 막말 발언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묵인 방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관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날 하루 만에 노동신문이 또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내정간섭을 하고 대선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논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평양에서 알았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제가 노동신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박진 위원 누가 장관께 보고 안 하던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정확한 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진 위원 이것이 평양에 가서 당시 협상하는 장관께 보고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바로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발언 내정간섭 발언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저는 지난번에도 항의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나 남북 관계 발전에 결코 이롭지 않

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박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참여정부의 대북 협상, 경협의 원칙이 뭡니까? 즉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호주의를 배제한 협상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상호주의를 채택해서 경협이나 인도주의적 사업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권영길 위원 상호주의의 배제, 상호주의에 따른 협상 지원은 아니다라는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확고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영길 위원 확고합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권영길 위원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이면합의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장관께서 "참여정부는 상호주의를 배격하고 그것은 확고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의 가장 큰 대목 중의 하나는 2·13 합의와 연계시킨 부분입니다. 장관께서 오늘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뭐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13 합의조치하고 경협이나 인도주의 지원이 연계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연계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2·13 합의의 내용 가운데 북의 핵문제 폐기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절대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 위원 일정을, 그러니까 남북 적십자회담 그다음에 경추위 회담을 4월 10일부터 죽 이렇게 배치를 한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반드시 그것을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도 필요하고, 회담의 여러 가지 일정상 4월 18일이 가장 적정한 기간이라 그때를 제시했고요. 북쪽도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채택해 주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2·13 합의 이행단계의 첫 조치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60일 내에 초기단계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4월 14일입니다.

○권영길 위원 4월 14일입니까?

중유 5만t 지원 시점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중유 5만t 지원 시점도 4월 14일 이전에, 역시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구체적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구체적 준비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가결을 해 가지고요, 일단 이 조치가 준비 기간이 꽤 걸립니다. 한 30일 이상 중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의결조치는 끝났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주로 미국입니다마는, 외신이 전한 바에 의하면 3월 말경에 중유 5만t이 지원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혀 낭설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언제 정확하게 끝나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용어를 왜 쓰지요? 무슨 품목은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해서 쌀과 비료가 핵심이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결국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주의 지원, 인도주의 협력, 인도주의 사업 이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결국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인도적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인도적 지원에 조건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제까지 꼭 무슨 조건을

달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남북 장관급 회담을 20차 해 오면서 공동보도문 속에 쌀이나 비료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어떻든 인도적 지원 결정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결정은 결국 일차적으로는 예산을 통해서 국회에서……

○권영길 위원 아니, 원칙의 결정을……

○통일부장관 이재정 원칙의 결정은 정부가 해야지요.

○권영길 위원 정부 안에서 통일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가 다 참여해 있고 민간대표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적 문제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문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더군다나 대북경협, 대북 협상의 주무 부처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혀 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통일부장관은 이번에 평양에 가서 회담할 때 원칙적 문제에 합의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참여정부는 절대로 상호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확고하다." 그런데 상호주의를 배제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상호주의를 배제한다고 그랬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상대이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북핵문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겠냐? 더군다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조건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아니냐? 이것을 안 하고 평화를 만들 수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미 간에 갈등이 강화되면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당당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면합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쌀을 지원하겠다. 비료를 지원하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면합의가 아니라 전면에서 당당하게 협상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은 잘못이다. 재개하겠다. 쌀·비료 지원하겠다. 다만 양과 절차는 경추위와 적십자회담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합의가 없는 것처럼 하면 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장관께서는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온 것입니까?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도 결국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고, 원칙에 대한 논의에 서로 공감대를 만든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관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 입장, 견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장관께 정말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외교부장관께서 여기서 보고를 하셨는데 2·13 합의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가 성과급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상호주의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는데 상호주의를 배제하시고 더군다나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남북 관계가 풀려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오늘 상임위가 굉장히 격렬하고 열띤 분위기였는데 이제 좀 차분해진 것 같아서 차분

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사실상 저희 국회에서 상원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외교·통일·통상과 같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관한 민족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정말 수준 높은 담론을 차분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특히 2007년은 아마 핵문제 이후에 아주 긴박한 현안 문제이자 미래에 관한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상임위위원회에서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고 또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문하기는 합니다마는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가 의회에서 가장 기피하는 단어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상대 위원이나 또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큰 원칙이고 또 전통이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디스 맨, 영어로 this man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지금 안 계셔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워낙 점잖으신 분이고 학덕이 높으신 분이라서 저도 오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표현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표현이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당의 간사께서 발언한 부분도 그렇고, 또 설혹 간사로서가 아니더라도 평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표현은 적절치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존경하는 진영 간사님과 임종석 간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적절하게 서로 화해하시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잘 풀어서 앞으로 원만한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지난번 북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가 전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참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7개월 만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습니다.

○배기선 위원 7개월 만에 남북대화의 채널을 복원시키시고 이제 국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도 크게 환영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참으로 중요한 미국과 북한이 저렇게 원만한 대화를 뉴욕과 워싱턴에서, 워싱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뉴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국민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국제사회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말 우리 국회가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 대화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합의문 내용을 보면 정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대체로 다 합의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참여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서 하실 일을 마땅히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상잔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증오와 갈등, 그리고 함께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분단국가에서 바보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정말 부끄럽게 우리 민족이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강대국의 노리갯감이 되는 듯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이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된다, 우리도 스스로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해서 한편으로는 안보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일 지향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병렬적으로, 서로 상반된 가치를 동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이런 아주 창조적인 민족 역량을 보여 줘야 될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에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만이 더 잘 진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해·협력사업 그리고 경제협력사업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평화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적 가치뿐

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G7, G9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의 도약해 내기 위해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이 평화와 남북공동의 협력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한나라당 위원님들한테 이 통일부장관 자리도 물려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통일부장관을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나라당과 북한의 당국이 서로 싸우는 것은 또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 민족 이익에, 또 국민들의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장관님이 더 좀 열심히 한나라당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앞으로 가능하면 모처럼의 평화를 안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나라당과 북쪽 당국이 부딪쳐서 놓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이재정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참 준엄한 역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에 평화 정착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재임하는 동안에 그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우리 민족의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희망을 만들고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도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여러 단계의 회담, 앞으로 이어질 여러 단계의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회담도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합의된 내용들을 우리 쪽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북측도 역시 성실하게 지켜야만 신뢰도 쌓이고 신의 있는 관계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보다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들은 다 마음속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 위원 시간을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원웅 5분 드리겠습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도 더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오전에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평소에 상당히 젠틀맨으로 통하셨던 고흥길 위원님께서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린, 저는 폭언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는 이런 발언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번 상임위가 진행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제기했고 또 임종석 위원께서 강도 높게 주문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대체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좀 더 실수 없도록 세심하게 남북협상을 잘하라.' 그런데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국의 통일부장관이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친북·좌파 인사로 규정하고 "김정일화에 현혹돼서 퍼 주기식 대북 지원을 했다." 이런 정치적 공세,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촉구였습니다. 특정 위원을 거명하지도 않았고 정책적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언에 가까운, 저는 의정 활동 3년 동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실수였으면 금방 사과하실 텐데 왜 이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 갔느냐…… 저는 그동안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오늘 통일부장관에게 또 과거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솔직하라.' '고해성사하라.' 저는 한나라당에 묻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인지, 6자회담 합의를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북핵 폐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6자회담의 합의를 주도적으로 도출했던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는 왜 반미의 딱지를, 친북의 딱지를, 김정일 추종세력이라는 비난을 일체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을 정부에 하는지……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자리에서 한 한나라당 의원께서 남북 합작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음모론, 이면합의를 주장했지만 과연 왜 이 시점에서, 6자회담이 합의되고 남북 관계 개

선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이 시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가, 저는 한나라당 내부가 시간만 지나면 대권이 눈앞에 있는데, 또 경선합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내부의 그야말로 치열한 권력투쟁을 오히려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료 위원이 한, 너무도 당연한 정책질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사과 요청에 대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친북, 반미, 그런 모욕적인 비난을 여전히 일삼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께서 사과와 더불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한나라당의 진정성, 용인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12월 대선까지 수백 차례의 음모설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바로 보고, 직접 보고 있는 가운데 진정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내 제1당, 진정으로 수권을 희망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신상발언보다 개인적인 모욕에 가까운 발언보다도 더욱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첩경임을 강조드립니다.

신상발언 겸 해서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통일부로서는 어떻든 남북관계에 관련된 이런 제반 일들을 국민의 뜻에 맞게 어떤 비난과 어떤 폄하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입장에서 국민이 여망하고 국민이 희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평화통일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성 위원님께서 또 그 부분의 말씀 하셔서,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이 아침에 여러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전부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랄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2·13 합의랄까 이번의 장관급 회담의 결과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대화로써 해결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얘기 안 해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북핵 관계, 남북 관계에서 특히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그런 실망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잘 짚어야 된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잘됐다는 얘기만 하려면 뭐 하러 국회가 있습니까? 상임위 뭐 하러 합니까? 다 그래도 위원들이 국민의 뜻을 전달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표현이 좀 지나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던 일은 다 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숨은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던 것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아까 권영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참여정부가 상호주의를 배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 생각하는 상호주의가 제가 생각하는 상호주의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9·19 합의도 그렇지만 2·13 합의를 보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떠한 행동 대 행동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처음에 장관께서 설명하실 때 이번 장관급 회담 합의에 임하는 3대 원칙을 설명하셨어요. 그 첫째가 2·13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3 합의라는 게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확히 해 놓았고 또 2·13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장관급 회담을 했으면 저는 그게 상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행동 대 행동 원칙, 그러니까 적어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앞으로 말 가지고 안 되고, 일방적으로 안 되고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것이 딱 상호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같이 행동을 해 나간다, 그래서 저는 상호주의를 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참여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인도주의 사업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원칙이 결국 깨지게 된 것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것이 깨지고 모든 지원 관계가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핵실험 사태로 일어난 여러 가지 한반도 위기라고 하는 것, 특히 북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호주의로 논의될 일도 아닌 것이고요, 지금 실제로 저희는 이 문제를 상호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나갈 수 없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역시 대북 지원 관계도 논의를 한다,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자회담에서 결의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6자회담의 원칙이고, 6자회담이 진행되어 나가는 여러 가지 진전 상황들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또 남북 관계도 저희는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고 역시 국민의 이해도 우리가 얻어 가면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 이것을 무슨 상호주의 원칙에 묶는다 안 묶는다, 이렇게 용어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영 위원 제 생각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랐다 이것도 좀 부적절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배제했다는 것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배제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임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종석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분 30초 정도 안 썼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도 겪으셨겠지만, 국내의 상당한 여론 중에 남북대화 자체 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이런 문제 등도 상당히 다른 문제와 연관 지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인도적 지원 문제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이나 핵실험 문제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원칙이 흔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재정립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러 번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쌀 40만t, 비료 30만t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장관님께서, 저는 비료 30만t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쌀 40만t은 4월 18일부터 있을 경추위 13차 회의를 통해서, 즉 절차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이면합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장관님의 분명한 의지가 여기에 실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2·13 합의는 정말 어렵게 그동안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려 나가는 6자회담, 9·19 선언에 대한 이행 합의로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는 우리가 긍정적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료는 특히나 때를 놓치면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물품 아닙니까? 그래서 적십자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지만 장관님께서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비료 30만t을 지원하는 것이 상황 진전에 보탬이 되고 옳다고 본다는 장관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쌀 40만t은 소위 이행조치 시간 60일 이후에 있을 18일 회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역시 이행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그런 의지가 배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경추위 회의를 4월 18일로, 소위 이행 초기조치 60일 이후로 잡은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우리 정부의 의지입니다.

○임종석 위원 소위 시기도 전략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국제 공조 관계나 또는 초기 이행조치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점에서 저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이행조치가 끝나기 직전에 4월 초나, 3월 말이나 이런 시점에 사실은 경추위 회의가 잡힌다면 오히려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좀 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회의로 활용해 봄직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야 이게 선순환구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다자틀의 합의들도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북 간 각 채널의 회의들을 이렇게 다자틀의 결과에 따라서만 잡지 마시고 그 결과에 우리 남북대화가 오히려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고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관님께 답을 듣고 싶은 질의는 가시기 전에 제가 개성공단에 대해 주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공동보도문 5의3항에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컨대 제가 주문을 드렸던 출입경 문제 같은 것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이 문제는 실무급 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상황들……

○임종석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이재정 예 그럼요, 구체적인 논의를 했고요 이런 얘기들은 역시 경추위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태여 나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본격적으로 경추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위원 경추위에서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경에 부담을 줬던 것은 북측 군부 쪽의 입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저는 경추위에만 맡겨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장관님께서 직접 북쪽의 고위급에 이런 의견 전달을 하고 평양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풀려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이재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자회담의 틀과 남북회담의 틀에 선순환적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기본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기본입장에서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6자회담의 이행을 지원하고 돕고 또 활력을 주고, 6자회담으로부터 남북회담의 어떤 새로운 과제들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자의 상보적 선순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남북문제를 적어도 남북대화의 틀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격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걸러지지 않은 격한 발언으로 아름답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시에 위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상호간의 발언은 물론이지만 위원님들과 장관 간에도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제된 표현을 쓰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단지 위원 상호간 또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격이 바로 국격입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이 바로 국가 격을 드러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의 수준을, 자긍심을 갖고 정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현안보고와 관련 통일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에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통일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고흥길	권영길	권영세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문희상	박 진	박희태	배기선
이해봉	이화영	임종석	정동채
정몽준	정의용	진 영	최 성
최재천			

○출장 위원(1인)

박종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태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장관	이재정
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홍렬
정책홍보본부장	이관세
정보분석본부장	김남식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고경빈
사회문화교류본부장	김중태
남북회담본부장	황하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용남